56년만에 오남매 극적 상봉 "단번에 알아봤죠"

최종원 씨 '가족찾아주기' 신청…장성경찰 도움으로 결실

헤어진 오남매가 정성껏 가족을 찾아준 경찰의 도움 으로 56년만에 상봉했다.

2급 장애를 가진 최종원(65)씨는 1969년 당시 11살 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가족을 잃어버렸다. 말이 어눌해 소통이 힘들었던 그는 부산 고아원에 강제 입소된 후 장 성으로 이주해 다른 이름으로 56년간 살았다. 지난 2월 갑작스런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그는 가족을 찾고자 장 성경찰서에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신청했다. 경찰은 전국적인 탐문수사 벌였고 결국 지난 7일 장성경찰서에 서 오남매의 극적인 상봉이 이뤄졌다.

큰 형인 종복(68)씨는 동생을 만난 날을 회상하며 "기적 같았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에 살고 있는 그에게 이달 초 경찰이 찾아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 물었고, 그는 동생이 형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동생을 만나러 갔더니 거짓말처럼 동생이 있었습니 다.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죠. 어렸을 적 모 습은 없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가 된 것마냥 아직까지 기분

한참을 번갈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가족들.

종복씨는 동생이 언어 장 애가 있어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동생 기분이 아주 좋아보였다 고 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음 식을 잘 넘기지 못할 정도 로 감격스러웠다고 덧붙

종복씨는 동생을 찾으 려고 부산 소재 고아원을 돌아다녔지만, 먹고 살기

바빠 계속해서 찾지 못했다. 동생의 입영 시기가 되자 결국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살다보니 동생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가 들어가니까 자꾸 동생 생각이 났어요. 동생도 생각났 던건지 저를 찾아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렵게 찾은 동생이니 자주 얼굴 보며 왕래해야죠. 동생의 과거 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지난 7일 장성경찰서에서 최종원(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씨가 56년만에 형제들을 만났다.

분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종복 씨는 "형님이랑 누님, 동생들이랑 만났으니까 자 주 보고 행복하자"고 동생에게 전했다. 또 자기일처럼 뿌듯해했던, 가족을 정성껏 찾아준 장성 경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6·25 전쟁, 미아, 해외 입양 등 찾지 못한 가족의 애타는 사연은 경찰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통해 상담 해 볼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5·18 44주년 기념 '제3회 전국 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 성황리 개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전국 무 등산무돌길완주대회'가 지난 11일 무등산 일원에서 성 〈사진〉 황리에 개최됐다.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 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 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완주(51.8km)와 하프(13· 23·33·43km), 5·18 사적지와 무돌길 15구간(푸른길)을 중심으로 한 시민 걷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참가자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 중 300여명이 51.8km구간을 제 한 시간인 11시간 안팎에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 연속 참가자 49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 연소(12세), 최고령(78세), 외국인 참가자상 등이 수



무돌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 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36개 마을과 마을을 잇 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 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 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언론인회. 대구경북언론인회 초청 간담회

'5월 광주' 진실 알리는 데 앞장 다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원로 언론인단 체 대표들이 만나 상호교류와 함께 '5월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김성)는 최근 '대구경북언론인회' (회장 이경우) 임원진 을 광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는 (사)대구경북언론인회 이 회장과 류수 열 직전회장, 김선왕 부회장, 이수만 사무 총장 등이 광주를 찾았고, 광주전남언론인 회 김 회장과 나의갑 직전회장, 정용화 부 회장, 서상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임원진들은 '전일빌딩

245'를 방문해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 현장을 살펴봤다. 계엄군의 헬기사격 탄 환흔적 245개가 남아있는 전일빌딩의 5. 18 기념공간에서 사진과 영상, 각종 기록 물 등을 접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임원들은 "1980년 광주의 참상과 언론탄압 등을 생생히 실 감했다"며 "영남지역민들에게 당시의 올 바른 진실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양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호방문과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대 변헌수 교수, '도레이화학공학상' 수상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변헌수〈사 진〉 교수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에서 2024년도 '도레이화학공학상'을 수상했다. 변 교수 는 지난 8~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 국공업화학회에서 'Best Paper Award '상도 받았다.

'도레이화학공학상'은화학공학분야에 서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변 교 수는 화공 및 고분자 열역학, 초임계유체

EBS1



공정, 분리공정 연 구를 기반으로 한 업적을 인정받았 다. 최근 2년간 SCI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돼 '영문지 공로상' 도 동시에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됐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가정의 달 기획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불편해도 괜찮아(재) 10 TV쇼 진품명품(재)	00 멱살 한 번 잡힙시다(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모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동물교실3(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8(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 MBC 뉴스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푹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푹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함부로 대해줘(첫회)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 도시락 스페셜
12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①:0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 05:00 왕초보영어
- 05:30 클래스 e
- 06:10 세계테마기행(재)

- 08:3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 09:05 엄마까투리

- 05:50 한국기행(재)
- 07:00 미스테리야
-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 08:20 한글용사 아이야(재)
- 09:0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 09:20 미리 가본 대학

- 07:15 빅 블루
-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재)
- 08:00 딩동댕 유치원

- 08:50 도레미 프렌즈

- 09:40 숲이 그린 집
-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1:20 세계테마기행
- 12:00 EBS 뉴스 12
- 12:10 극한직업
-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재)
-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15:15 클래스 e
-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유치원(재)
- 16:30 페파피그
- 16:40 마샤와 곰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 16:5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17:10 명탐정 피트4(재)
-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 18:10 EBS 뉴스
-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 19:20 고향민국
- 19:50 탑골스타 개청이(재)
- 20:10 탑골스타 개청이
- 20:30 오구오구 내 새끼 20:40 세계테마기행
- 〈인도네시아-뜨거워서 좋아, 브로모〉 21:30 한국기행
- 〈섬마을 민박 1부 먹다 지쳐도, 대이작도〉
- 21:55 PD로그 22:45 EBS 다큐프라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3일 (음 4월 6일 丁丑)





36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48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60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 니라. 72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84년생 조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96년생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4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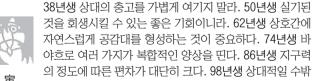


丑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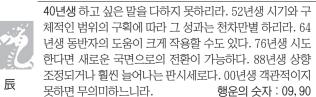
巳

37년생 일방적이라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49년생 개 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 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61 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73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85년 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97년생 바로 잡 아야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85



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23,69 39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 다. 51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63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 다. 75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87 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도다. 99년생 이익을 창



41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감수하 라. 53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 다. 65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77년생 대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마음을 알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01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9,62



다. 54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 니라. 66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78년생 소홀히 해 왔던 점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90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02년생 계란으 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0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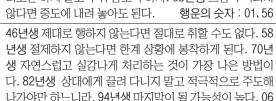
未

43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55 년생 신중 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67년생 속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79년생 기본 진로 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 91년 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03년 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2,70

44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56년생 기한을 도과한다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68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의지와 상관없 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줘야 할 형국이다. 92년생 구상은 좋 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0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1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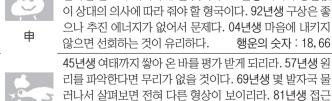


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69년생 몇 발자국 물 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81년생 접근 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93년생 쏟아 내 려고만 하지 말고 주워 담도록 하자. 05년생 느낌이 여의치



35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47년 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무궁한 발전에 이르게 된다. 59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 야겠다. 71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 하다. 83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95년 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1,91







행운의 숫자 : 22,60



